

# 청년 7명 “광주의 맛·멋·문화 책임지겠습니다”



오는 10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광주폴리3 '쿡폴리' 바 '콩집'(왼쪽)과 한식 요리점 '청미장'.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2017 文化로 물들다

### 1 광주 산수동 쿡폴리

지난해 문화계에 다친 '최순실 파문'은 어렵사리 활동을 이어나갔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하지만 예방광주는 언제나 그렇듯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으로 광주 문화 색채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줄 인물·장소를 소개해본다.

**장진우 셰프 참여 광주비엔날레 3차 풀리**  
서울서 4개월간 교육 받고 10일 개장 준비  
폐가 리모델링 바 '콩집' 식당 '청미장' 열여  
“토크 콘서트·영화 상영...문화 활력소 될 것”



쿡폴리를 운영하는 '맛있는골목협동조합' 조합원들. /연합뉴스

“쿡폴리가 동명동, 산수동 일대 문화명소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찾은 방문객들이 광주 맛을 만난 후 쿡폴리에서는 광주 맛을 즐기는거죠. 광주 문화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2일 오전 방문한 광주시 동구 산수동(363-22번지) 쿡폴리는 유리 온실을 떠올리게 하는 큼직한 유리창이 눈에 들어오며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청미장'이라 써진 푸른색 배경 입간판을 따라 골목길을 조금 더 들어가니 한옥을 개조한 한식 음식점이 나온다. 첫 건물과 마찬가지로 전면 통유리를 설치해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구조다. 쿡폴리를 구성하고 있는 바(Bar) '콩집'과 식당 '청미장'이다.

쿡폴리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진행한 3차 광주폴리 중 하나로 오는 10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음식점은 시범 운영 중이다. 약 50년 전에 지어진 공예가 건물 2채를 신축·리모델링했다. 기동, 연탄창고를 일부러 철거하지 않고 놔둬 오래된 건물 분위기를 살렸다.

폴리는 원래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을 뜻하지만 재단은 '기능적인 역할을 더해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건축물'로 광주폴리를 새롭게 정의내리고 추진하고 있다. 쿡폴리는 도심 미관 향상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대표 사례다.

특히 황량했던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 '장진우 식당'을 열며 문화명소로 만든 장진우 셰프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광주 출신 청년 7명을 직접 선발해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서울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며 메뉴, 운영방향 등을 컨설팅했다.

오명구(32)씨를 대표로 성원재(37), 주현찬(26), 나세환(25), 김용성(25), 채한솔(25), 박고운(여·25)씨 등은 지난 12월 초 '맛있는골목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콩집은 오 대표와 채한솔, 박고운씨가, 청미장은 나머지 조합원이 맡는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만큼 각각 지닌 사연도 다양하다. 서울에서 건축 일을 하다 참여한 성원재씨,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홍일점 박고운씨까지 모두 요리를 좋아하고 맛으로 광주를 재미있게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 대표는 “서울에서 교육받을 당시 장진우 셰프 말 중 가장 귀담아 들었던 점은 소통이었다”며 “‘콩집’은 일부러 가운데에 주방을 두고 테이블을 설치해 손님과 셰프들이 마주보는 방식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한솔씨는 “콩집은 낮에는 커피와 주스 등을 팔고 밤에는 칵테일·맥주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광주시민들에게 바텐더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미장도 마찬가지로였다. 손님 수에 따라 언제든지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게 2인용 탁자를 여러개 준비했다. 이름은 광주 역사를 공부한 후 직접 지었다. 청미장은 6·25전쟁 이후 광주에서 처음 생겼던 한정식집 이름이고, 콩집은 같은 시기 문을 열며 안주로 콩음식을 팔았던 바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식당 운영은 요리 실력 이외에도 성격과 좋아하는 분야에 따라 역할을 나눴다. 외향적인 나세환씨는 홀서빙을, 음악을 좋아하는 김동성씨는 식당 배경음악을 담당했다. 김씨는 “앞으로 날씨, 시기, 손님 연령층에 따라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선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맛’이었다. 장진우 셰프와 함께 기획한 곱창전골을 비롯해 광주시민들이 결혼식 등에서 자주 먹었던 불고기전골을 준비해 추억을 자극한다. 그밖에 스키(소 힘줄) 전골을 개발했다. 오 대표는 “끊임없이 메뉴를 개발해 재방문한 손님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독특한 건물 외향과 함께 맛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수동 랜드마크를 꿈꾸고 있다. 지역 문화기획자들과 연계해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동네 사랑방 역할도 염두에 두고 있다. 쿡폴리에서 토크콘서트, 영화상영 등 문화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쿡폴리는 천장이 높아 멀리서도 잘 보여요. 광주를 구경하고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맛을 느끼시는 거죠. 10년 뒤, 20년 뒤에도 쿡폴리가 다양한 광주 문화를 선보이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 062-608-42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 예향 1월호



## 미리 본 정유년 소비트렌드 되돌아 본 전라도 1000년

### 이해인 수녀 시와 삶 조명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장기적인 경기불황 속에 울હે는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이 예고돼 있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도 희망찬 정유년을 희망하며 신년호를 준비했다.

새해에는 어떤 사회문화적 트렌드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펴낸 '트렌드 코리아 2017' 등을 통해 2017년 트렌드를 미리 그려 봤다.

1월호 특집은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 미래를 열자!'. 2018년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전북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어떤 프로젝트를 펼치는지 알아보고, 전라도 1000년 역사를 더해볼 수 있는 전주와 나주 곳곳을 살펴본다.

정유년 가장 먼저 만나는 초대석 주인공은 위로와 희망의 시를 쓰는 이해인 수녀다. 새해는 시인으로 등단한지 47년,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를 출간한 지 41년이 된다. 그 세월동안 많은 시를 쓰며 고단한 독자들을 위

로하고, 희망을 안겨줬던 시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 '남도향구'가 찾은 곳은 고흥반도 끝자락에 자리한 녹동항이다.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아 다기능복합 항구로 거듭나고 있는 녹동항을 찾아 생생하고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새롭게 선보이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은 박순애 옛강정 명인으로 문을 연다. 종갓집 판머느리로 시집과 집안 대대로 전해오던 한과 하나로 국내 최대 한과회사를 이뤄낸 박 명인에게서 전통 한과 이야기 들어본다.

남도의 맛과 맛, 흥을 찾아 떠나는 남도 미미리(美味樂)는 우리나라 국토의 시작점이자 땅끝인 해남을 찾아 떠난다. 두륜산·땅끝·우수영 권역 곳곳을 둘러보고 사계절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다채로운 축제 이야기와 아낙네들의 손맛으로 탄생한 토속 별미들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교육현장을 찾아가고, FA에서도 KIA를 선택한 '영원한 타이거즈맨' 나지완 선수를 만나본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 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학·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